

공공기관 감축 나주 혁신도시 타격

한국전력 등 이전기관들 본사 인원 반년 새 200명 줄어
인구·가족동반 이주 감소...지역인재 하반기 공채 '비상'

새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칼날을 들이대면서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 등 이전기관들의 본사 인원이 반년 새 2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이미 주무 부처에 정원 감축안을 제출한 상태로, 하반기 공채를 노리고 있던 지역인재들의 취업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공기업 16곳의 이전 인원은 7802명으로, 지난해 말(7999명)보다 2.5%(-197명)나 줄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이전 인원은 반년 새 0.1%(4만5576명→4만5626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인원이 줄어든 도시는 나주(-197명)와 경남(-95명), 충북(-24명), 경북(-16명) 등 4곳이다. 연 말보다 이전 인원이 늘어난 혁신도시는 강원(134명↑)과 울산(78명), 전북(74명) 등 6개 지역이다.

10개 도시 가운데 나주의 감소 폭이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이전 인원이 6개월 새 250명 넘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본사 인원은 1724명으로, 지난 연말(1982명)보다

13.0%(-258명) 줄었다. 이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9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4명), 한전KDN(-10명) 등 16곳 중 7곳 본사 인원이 감소했다.

혁신도시 조성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이전 인원이 줄어든 탓에 도시 규모는 반년 새 후퇴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 빛가람동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연말보다 0.1%(-55명) 줄어든 3만9191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4만9499명) 대비 달성률(79.2%)도 소폭 감소했다.

인구뿐만 아니라 가족동반 이주 인원도 95명 줄면서 나주 가족동반 이주율(1인 가구 포함)은 지난 연말보다 0.5%포인트 감소한 70.4%를 기록했다. 가족동반 이주율이 줄어든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3.6%포인트)과 한전(-2.7%포인트) 등 9곳이다.

전국 혁신도시 평균 가족동반 이주율 67.7%를 밑도는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66.0%), 한전(57.9%), 한국농어촌공사(64.5%) 등 3곳이다.

혁신도시 인구와 가족동반 이주 인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오는 젊은 층도 크게 줄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주 혁신도시만 20~39세 인구는 303명 감소했다. 그 때문에 같은 기간 빛가람동

인구 평균 연령은 32.8세에서 33.1세로 늘었다. 혁신도시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빛가람동에 있던 병·의원은 3곳이나 문을 닫아 정주 여건이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앞으로 나주 혁신도시 축소와 신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박영순 의원의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나주에 본사를 둔 전력그룹사 4곳은 정원을 533명 줄일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전은 현 정원(2만3728명)의 1.1% 수준인 260명 정원을 반납한다.

한국농어촌공사(-191명)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8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명) 등 농업 관련 기관도 각자 여력에 맞춰 정원을 감축할 계획을 내놓았다.

올해 초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은 신규 채용계획 1615명 가운데 244명을 지역인재로 채용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의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하반기 채용 규모가 불투명해져 취업준비생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1조 1000억원 삭감한다는 예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고, 앞으로 자산과 기능, 조직·인력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성스러운 사랑 갈구하는 성녀의 얼굴

조르주 루오 지상展

'베로니카'



'베로니카'
1945년, 50 x 36cm 유채, 퐁피두 센터 소장

예수님의 수난을 목격한 무리들 가운데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리스도의 얼굴을 닦음으로써 그 천에 성인을 찍히게 했다는 성녀 베로니카의 얼굴이다. 베로니카라는 이름은 실존 인물의 이름이라기보다는 'vera icona'에서 유래한 것으로 '참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성녀 베로니카는 이후 공경받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정순한 얼굴 표정과 순수한 눈동자를 가진 여인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성스러운 사랑을 갈구하는 듯하다. 베로니카의 얼굴을 둘러싸고 있는 피로 얼룩진 천과 이마에 그려진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흘린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표현한다.

〈장미라·전남도립미술관 학예사〉

美 대사 "전술핵 주장 무책임·위험"

미국 국무장관도 부정적 견해
"핵무기 확산 방지가 중요"

북핵 대응을 위해 정칙권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대사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정부도 미국의 핵비확산 기조에 공조를 취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밝힌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긴밀 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평가를 묻자 "아직 보도를 접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한 뒤 "아마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그 협의 틀 내에서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면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의 발언은 확장억제와 비확산에 방점을 둔 이런 골드버그 대사의 입장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와 핵무기 비확산 체제와 관련, "결국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비확산 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블링컨 장관 밝힌 이런 미국 측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있어 거의 매일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효천2 지하차도 공사 한창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관문인 광주시 남구 행암교차로 '광주 효천2 지하차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행암교차로의 하루 평균 차량 이동량은 6만7000여대에 달하지만, 공사는 2017년 이후 5년 넘게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주주투자공사(LH)는 올해 말 지하차도 구간을 임시 개통, 내년 4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여순사건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6면
- 고봉을 만나다 - 월봉서원 문화재 활용 ▶11면
- 벤치마 발동드르 품다...손흥민은 11위 ▶18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제29회 **음식의 문화는 버무리다**

광주세계김치축제

GWANGJU WORLD KIMCHI FESTIVAL 2022

10월 20일(목) ▶ 23일(일)
광주김치타운 일원

주최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관 **광주세계김치축제위원회**